"문화콘텐츠 확보에 역량 모으자"

■이병훈 亞문화도시 추진단장 전남대 특강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창설 등 세계 예술인 포용 필요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27일 "이제 문화전당 건물 자체에 대한 논란을 그치고 향후 건립될 문화전당을 어떻게 운용하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열린 '제6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특강-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단장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1년3개월 여를 허비한 탓에 문화전당 완공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졌다"며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파급효과를 거두려면 문화전당이 효과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확보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광주에서 창설하는 '한-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도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 확보작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위원회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화와 설화를 공동연구,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문화원에 자료로 보관해 영화, 애니매이션 창작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아우른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를 창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진단은 아랍(영상), 남아시아(전통무용), 동북아시아(전통연희) 등 아시아 5대 권역의 예술적 특성을 문화수도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이 단장은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예술인과 문화전문가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단체들이 폐쇄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세계 예술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포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장은 "개인적으로는 문화전당 내 별관을 일부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별관을 일부 존치키로 방침을 정한 이상 더 이상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청사 홍보역 톡톡

TV녹화·영화촬영 잇따라

광주시청 청사가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야외음악당에서 영화 '식객2-김치전쟁' 촬영이 진행된 데 이어 모 방송국 연예프로그램 주연배우 인터뷰 녹화가 청사 비즈니스 룸에서 이뤄졌다.

또 TV 연예프로그램을 통해 '식객2-김치전쟁'을 촬영 중인 시청 야외음악당과 문화광장 등이 전파를 타면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시·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3층 대회의실과 1층 시민홀, 시의회 옆 야외음악당 등 시청사 안팎을 개방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청사 1층 시민홀(600㎡)은 희귀 분재전시와 꽃축제 등 연중 200여일간 각종 전시회와 실내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현장과 시각

교육은 경제가 아니다

박 진 표
사회 1부 기자

지난해 해남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회사에서 마련해 준 원룸에서 거주하게 됐다. 혼자 사는 터라 간단한 살림만 챙겨갔는데, 살다보니 필요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모든 양념류가 필요했다. 또 TV는 기본이고, 다리미부터 쓰레기통, 하물며 욕실용 슬리퍼까지….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보니 원룸에 일반 4인 기준 가정과 비슷한 종류의 살림살이가 가득 들어찼다. 1인 가구나 4인 가구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똑같기 때문이다.

생뚱맞은 비유 같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수가 1명인 학교나 100명인 학교나 교실은 기본이고, 운동장과 각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등 모든 교육여건이 완비돼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최근 교원 정원(교사수)을 학생수와 학급수를 혼합한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겉으로는 인원수 대비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인다. 교육 예산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경제적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고, 소규모 학교가 산재한 전남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당장 내년에만 전남에선 714명의 교원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전남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339개교에 이른다. 전체 학교의 40%에 이르는 숫자다.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과목별 교원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과목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묶어서 가르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원을 줄일게 아니라 늘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교과부 관료들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하다. 경제논리만을 따져 정책을 세우다보니 애꿎은 농산어촌의 교원수는 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의 지원은 줄이고, 숫자가 많은 도시 학교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게 교과부 관료들의 속내인 듯 하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농어촌 교육의 경쟁력 확보' 세미나에 참석한 교과부의 전우홍 교육복지정책 과장은 교육복지의 정의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현 정부는 농산어촌으로 되돌아 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 과장의 말대로라면 전남의 소규모 학교 학생도 도시학생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적정 인원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입으로만 교육 복지 운운하지 말고,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산어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 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lucky@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호남성공시대포럼' 초청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이 먼저 호남민 감동시켜야"

이정현 의원 '호남성공시대포럼' 초청 특강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은 27일 "DJ 이후 호남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호남성공시대포럼'(공동대표 이정록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초청 특별강연에서 "여야간 정치적 이해가 다를 때도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무한히 커 보인다"고 술회하면서 "하지만 이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건국과 근대화, 민주화 이후 화합과 선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남은 도약과 선도의 기회를 맞이했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수출시대에는 영남지역 항구가 관문이었지만 이제 중국이 주 무역대상국이 되면서 호남지역 항구는 번창하게 돼 있다"며 지역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또 "2012 여수엑스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F1대회, 순천 정원박람회 등 호남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호남 국제화의 찬스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는 김치연구소 유치에 이어 R&D 특구 지정도 곧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누가, 어느 단체가, 어느 정당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을 잘 살게 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 이상 경쟁없는 '부전승 정치, 부전승 선거'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먼저 변해 호남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박지원 의원 목포대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30일 이희호 여사도 참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설립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목포)이 오는 30일 목포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27일 "박 의원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약학대학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목포대학교가 '광역경제권 선도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공헌해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학위 수여 배경을 밝혔다.

목포대는 또 "박 의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각각 목포지방법원, 목포지방검찰청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노동자의 날 제정법'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을 발휘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원순 변호사 광주 강연

내일 오전 11시 광주역 3층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정치 운동'을 선언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희망과 대안'의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변호사가 29일 광주에서 대중 강연회를 연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역 3층 대강당에서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시민사회운동의 한계와 극복 방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박 변호사 강연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가 '2010 지방선거와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대의정치의 변화를 위해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강연회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